

ISSN 1599-7863

# 박물관사람들

2022년 봄 · 76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발행일 2022년 3월 31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5  
기획 이재범 편집위원 강현자·길문숙·문경원·서유미·정은정 진행강지은 디자인 등방문화 (02)2275-1913, 1924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2022년 봄 76호

### 기획 / 봄, 꽃

- 04 | 매화 향기는 옷깃 가득
- 08 | 무릉도원은 어딘가에 있다
- 12 | 상춘곡 賞春曲

### 문화칼럼

- 16 | 봄을 찾는 마음

### 회원마당

- 20 | 샤니라크에 햇빛 비칠 때
- 24 |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박물관 탐방

- 28 | 그들이 울고 울렸을 때

### 박물관회 소식

- 32 | 2022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안내

### 숨은전시

- 33 | 우리는 개구리가 아니오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34 | 기부회원 명단

# 매화 향기는 옷깃 가득

매화, 매서운 찬바람을 뚫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다. 설중매雪中梅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눈 속에서 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매화를 옛 선비들은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여겼다. 자그맣고 가녀린 매화 한 송이가 전하는 곧 따스한 봄이 올 거라는 소식은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매화를 좋아하여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굽고, 베풀을 깎았다.

꼬장꼬장한 성격이었을 것 같은 퇴계 이황 선생의 매화 사랑은 유별났다. 매화를 주제로 한 시 91수를 모아 『매화시첩』을 엮었고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이 “저 매화 화분에 물을 주어라.”였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병이 이미 깊어 옷을 입은 채 설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매형梅兄에게 불결하니, 마음이 절로 미안하다.” 하며 화분을 다른 방으로 옮기라 하셨다. 봄밤에 매화 핀 프락을 거닐며 남긴 시에도 절절한 사랑이 넘친다.

뜰 가운데 거니는데 달이 나를 따라오고 步躡中庭月趁人  
매화 들레 몇 번이나 서성이며 돌았던고 梅邊行繞幾回巡  
밤 깊도록 오래 앉아 일어설 줄 몰랐는데 夜深坐久渾忘起  
향기는 옷깃 가득 그림자는 몸에 가득 香滿衣布影滿身  
- 「도산의 달밤에 핀 매화」 중에서



조희룡, <붉은 매화와 흰 매화>, 국립중앙박물관



백자 청화 철채 동채 매화무늬 사각형 합, 국립중앙박물관

영조 때 승지와 대사간을 지낸 박사해朴師海의 매화 사랑도 대단했다. 어느 겨울날 안채에서 잠을 자는데 밖에서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쳤다. 뜰 앞의 매화가 얼까 걱정된 그는 덮고 있던 하나뿐인 이불로 매화나무를 친친 둘러쌌다. 그리고 벌벌 떨며 아내에게 말했다. “이젠 안 춥겠지?” 박사해 본인은 사랑하는 매화나무를 위해 추위를 참고 견뎌냈지만, 얼떨결에 당한 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긴 하다.

『호산외사』에 실린 김홍도의 일화 역시 유명하다. “어떤 사람이 매화 한 그루를 파는데, 아주 기이한 것이었다. 돈이 없어 그것을 살 수 없었는데 때마침 돈 3000냥을 보내주는 이가 있었다. 그림을 요구하는 돈이었다. 그중에서 2000냥으로 매화를 사고, 800냥으로 술 두어 말을 사다가 동인들을 모아 매화음梅花飲을 마련하고, 나머지 200냥으로 쌀과 딸나무를 사니 하루의 계책도 못 되었다.”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을 지낸 이덕무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한때 자신의 호를 ‘매화에 완전히 미친 바보’란 뜻의 매화탕치梅花宕痴 또는 줄여서 매탕梅宕이라 할 정도였다. 매화를 일 년 내내 가까이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늘 서운했던 그



백자 청화 양각 매화 대나무무늬 각병, 국립중앙박물관

는 밀랍과 종이로 매화꽃잎과 가지를 만드는 방법을 익혔다. 그의 나이 열일곱 살 때 일이며 이렇게 만든 인조 매화에 ‘윤희매’라는 이름을 붙이고 『윤희매집전』이란 글에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박지원과 유득공에게 윤희매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박지원은 보증서까지 붙여 그 매화를 팔기도 했다.

또 한 사람의 매화 바보는 조희룡이다. 그의 삶은 온통 매화 그 자체였다. 일흔다섯 살에 쓴 회고록 『석우망년록』에 남긴 글이다. “내가 그린 매화 병풍을 방 안에 둘러치고 매화를 읊은 시가 새겨져 있는 벼루와 매화서옥장연梅花書屋藏烟이라는 먹을 사용했으며, 매화시백영梅花詩百詠을 지어 큰 소리로 읊다가 목이 마르면 매화편차梅花片茶를 달여 먹었다. 그리고 집은 매화백영루梅花百詠樓라 이름 짓고 호를 매수梅叟라 하였다.” 예순세 살에는 추사 김정희의 복심腹心이라는 혐의로 임자도로 귀양을 가는데, 거기서도 3년간 매화 그림만 그렸다.



조희룡, <매화가 핀 서옥>, 국립중앙박물관

이토록 사랑하는 매화를 보러 가는 이야기도 많다. 눈 속에서 첫 꽃송이가 벌어질 무렵의 매화를 찾아가는 것은 ‘심매尋梅’ 혹은 ‘탐매探梅’라 했고 활짝 핀 매화를 찾아 화사한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은 ‘관매觀梅’, ‘상매賞梅’ 혹은 ‘방매訪梅’라고 했다. 탐매는 일생 동안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녹문산鹿門山에 숨어 산 멍호연孟浩然이라는 당나라의 시인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는 이른 봄이면 장안의 동쪽 파수灞水에 놓인 파교라는 다리를 건너 채 눈이 녹지 않은 산으로 가서 매화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이 주제를 다룬 그림도 여럿 전하는데 심사정, 김명국, 신잠 등의 탐매도가 있다.

탐매도 못지않게 많이 다뤄진 주제는 ‘매화서옥도’로 조희룡, 전기, 이한철, 안중식 등의 그림이 전한다. 매화서옥도는 송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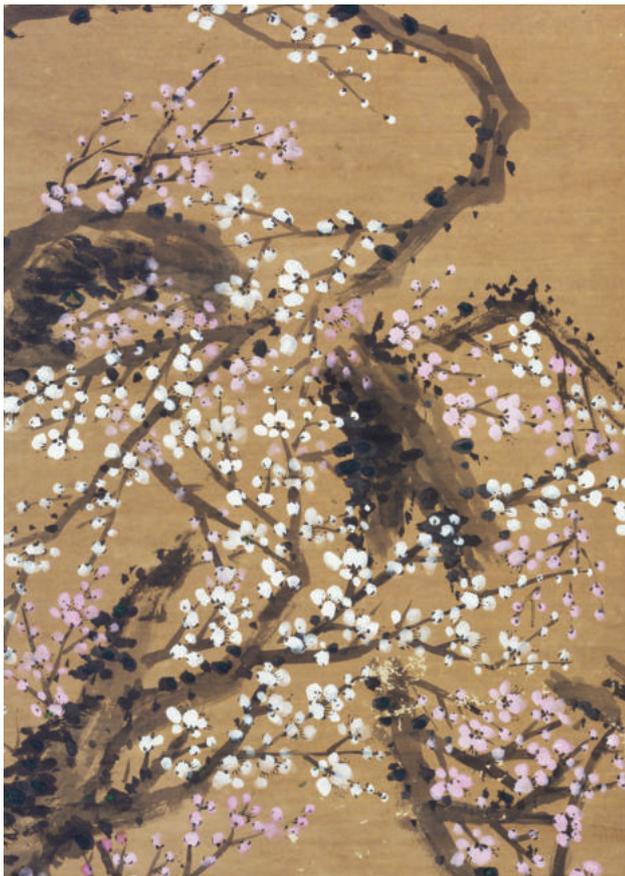


나전 칠국화 모란 병클 매화 대나무 무늬 상자, 국립중앙박물관

라의 임포林逋라는 학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는 부패한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20여 년간 세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혼도 하지 않고 학과 사슴을 기르며, 술을 마시고 싶으면 사슴의 목에 술병을 걸어 마을로 사러 보내고, 손님이 오면 학이 하늘로 날아올라 알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매화를 아내 삼고 학을 아들 삼았다.’고 하여 ‘매처학자梅妻鶴子’라 불렀다.

매화는 초봄에 일찍 피기도 하지만, 오래 피어 있지도 않는다. 비라도 한 번 내리면 속절없이 꽃잎을 모두 떨구고 만다. 그래서인지 어느 해나 매화가 지고 나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다. 올해부터라도 철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강희안의 『양화소록』 매화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비스듬히 기울어지고 여윈 것과 늙은 가지가 기이하게 생긴 것을 귀하게 여겼다. 노목이 되어 구부러지고 오래 묵어 노태가 날수록 좋은 것이 매화다.” 300년에서 500년 정도 되는 고매古梅는 아무래도 따뜻한 남쪽 지방에 많다.

‘호남5매’로 꼽히는 것은 장성 백양사 고불매, 담양 지실 계당매, 광주 전남대 대명매, 고흥 소록도 수양매, 순천 선암사 선암매이다. 그중 소록도 수양매는 2011년 여름 폭우에 쓰러졌다가 그해 10월 말라죽고 말았다. 그 후에는 보통 화엄사의 흑매



조희룡, <붉은 매화와 흰 매화>, 국립중앙박물관



매화 해 달 무늬 벼루,  
국립중앙박물관

를 꼽는다. 2021년 봄을 기준으로 보면 전남대 대명매가 3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피고, 화엄사 흑매와 선암사 선암매는 3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피었다. 백양사 고불매와 담양 지실마을 계당매는 25일 이후에야 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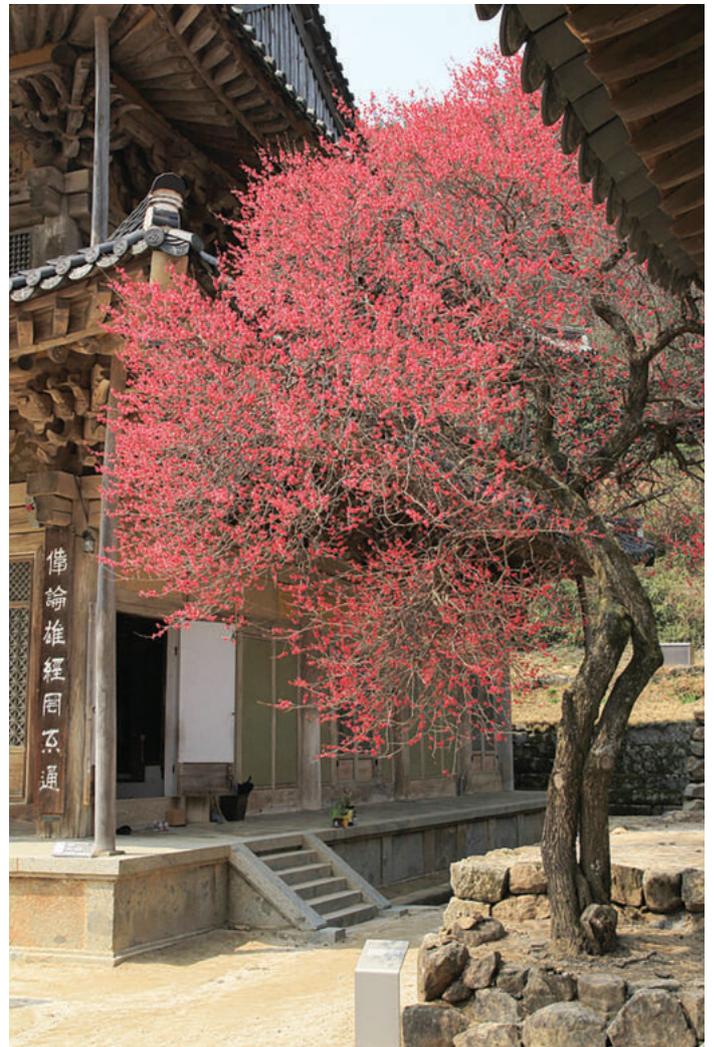
지리산 동쪽 자락 천왕봉 아래 산청에는 '산청3매'가 있다. '호남5매'가 주로 절집에 있다면 '산청3매'는 유학자들과 관련이 깊다. 남사마을의 '원정매'는 고려말의 문신 원정공 하즙(1303~1380)이 직접 심었다는 수령 600년이 넘는 고매이다. 원래 나무는 2006년 수명을 다했고 밑동에서 자라난 후손 나무가 연분홍 겹꽃을 피우고 있다. '정당매'는 단속사 터에 있는데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강희백(1357~1402)이 심고 가꾼 나무로 그가 올랐던 '정당문학'이란 벼슬 이름을 따서 정당매라 부른다. 수령이 600년이 넘는 우리나라에

서 가장 오래된 매화였지만, 2014년 원래 나무가 죽고 지금은 2013년에 가지를 접목으로 번식한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다. '남명매'는 남명 조식 선생이 1561년 산천재를 지을 때 손수 심은 매화라고 한다. 퇴계 이황과 동갑내기이자 학문적 라이벌이기도 했던 남명은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지만, 상소를 올리며 당시 왕이었던 명종을 '선왕의 외로운 후사' 즉 '고아'라 표현하고 대비 문정왕후를 '깊숙한 궁궐의 한 과부'라 표현할 정도로 기개가 대단한 선비였다. 이런 그였지만 매화를 향한 시선은 부드럽고 포근했다.

한 해가 저물어가니 홀로 지내기 어려운데  
새벽부터 날 썰 때까지 눈까지 내렸구나  
선비집은 오래도록 외롭고 쓸쓸했는데  
매화가 피어나니 다시 맑은 기운 솟아나네  
「설매雪梅」

산청3매는 보통 3월 중순에 피지만, 작년에는 3월 5일에 이미 만개했다는 뉴스가 있다. 세상사 연결 안 된 일이 없었지만 지구온난화가 매화꽃 구경에도 영향을 주다니..... 우수, 경칩이 다가오면 날씨를 부지런히 챙겨봐야겠다. 🌸

길문숙 회원



화엄사 흑매(대동문화재단, 『남도매화를 찾아서』)

# 무릉도원은 어딘가에 있다

이른 봄에 일찍이 피는 복사꽃은 달콤한 향기와 하늘하늘 날리는 꽃잎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연분홍 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는 도원에서 있으면 몽환적인 분위기에 취해 꿈꾸는 듯한 막연한 동경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곳이 유토피아인가 이상향인가. 문득,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경의 세계인 ‘유토피아’와 ‘이상향’은 유사하면서 다른 느낌이 든다. 서양의 유토피아는 ‘어느 곳에도 없는’ 현실에 없는 낙원으로 느껴지지만, 반면에 동양인들이 꿈꾸는 이상향은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긍정적인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처럼 느껴진다. 이 봄, 긍정적인 희망을 꿈꾸는 낙원, 이상향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복숭아꽃 유혹에 빠져본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사람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을 더듬어 보면 미래의 이상향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등장하는 무릉도원이다. ‘진짜나라 때 무릉에 사는 한 어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 복숭아꽃이 만발한 숲을 지나 평화로운 마을에 이르렀다.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왔는데, 다시는 아무도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복숭아꽃 마을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닌 것처럼 아름다운 곳, 무릉도원이다.



백자 청화 복숭아모양 연적,  
국립중앙박물관



왕문, <복사꽃 마을>  
국립중앙박물관



안중식, <배를 타고 복사꽃 마을을 찾아서>, 국립중앙박물관

그러면 왜 무릉도원 같은 이상향을 떠올리는 곳엔 항상 복숭아꽃이 등장할까?

복숭아는 신선들이 즐겨 먹는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복을 기원하고 재앙을 물리친다고 여겼다. 또한 복숭아꽃은 번성과 번창,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악령을 쫓아내는 효과도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벽사와 길상을 상징하는 복숭아꽃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상세계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다.

「도화원기」에서, 마을 입구에 복숭아꽃이 만발한 것은 이 마을이 장수를 상징하며 악령의 침입을 막고 깨끗한 신의 영역임을 상징한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세월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도화원을 찾아간 어부는 동진시대의 사람인데, 도화원 사람들은 500여 년 전 진나라 때 난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세계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도화원 밖의 세상은 500여 년이나 흘렀는데 이 마을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것이다. 「도화원기」의 결말을 보면, ‘어부가 자신이 갔다 온 길을 표시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길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어부가 도화원에 간 것은 하루 동안이었지만 도화원 밖의 세계는 수십 수백 년이 지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상향이란 걱정 근심이 없는 행복한 시간들이 흘러가는지 멈춰 있는지 세월의 흐름을 느끼지 못할 만큼 평화로운 곳을 의미한다.

장수와 복을 기원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예술작품에 복숭아를 소재로 한 것들이 많다. <신선 세계의 복숭아(海蟠桃圖)>는 도교의 전설 속에서 신선이 먹는다는 복숭아인 해과該課를 그린 것이다. 복숭아가 열린 이곳은 신선인 서왕모가 거처한다는 바다 위의 곤륜산, 즉 상상의 선계仙界이다.

어쨌든 도연명의 「도화원기」는 이상향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후대 문학과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안중식의 <배를 타고 복사꽃 마을을 찾아서(桃源行舟圖)>와



歲丁卯四月二十日夜余方就枕精神遽  
 睡之熟也夢亦至焉忽與仁叟至一山下  
 巖深壑峭峰窈窕有桃花數十株微徑抵  
 表而分歧細徑野立莫適所之過一人山  
 野服長揖而謂余曰從此往以北入谷則  
 源也余與仁叟策馬尋之崖磴卓犖林莽



와타나베 가잔, <복숭아꽃>, 국립중앙박물관

왕문의 <복사꽃 마을(桃源洞天圖)>은 어부가 도착하여 복숭아밭에 내려 이상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모두 「도화원기」를 바탕으로 한 무릉도원을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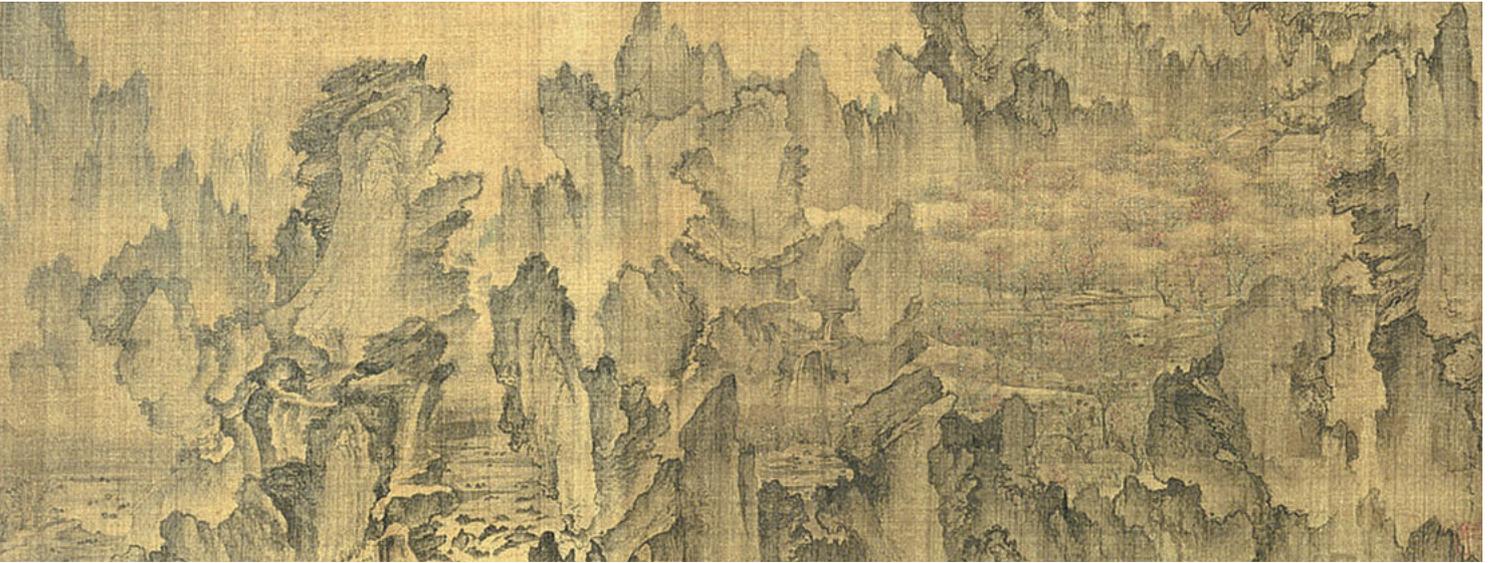
도연명의 「도화원기」 발표 1000년 뒤, 조선의 안평대군과 안견에게까지 그의 상상력이 미쳤다.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속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완성한 작품이 바로 <몽유도원도>이다. <몽유도원도> 발문에는 안평대군이 직접 썼다는 꿈속 이야기가 적혀 있다.

‘1447년 4월 20일 밤, 꿈속에서 처음 당도한 깊은 골짜기는 그윽하고 아름다웠다. 기암절벽과 구불구불 깊은 계곡을 돌고 돌아 골짜기로 들어가니 사방이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이고 복숭아꽃 수십 그루가 있는 도화 숲이 어리비치고 붉은 안개가 떠올랐다.’

여기에 나오는 복사꽃 만발한 곳이 「도화원기」에 등장하는 도원이기도 하다. 가로 폭이 긴 그림으로 화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꿈속 이야기가 전개된다. 안견은 왼쪽 하단 오솔길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깊

은 계곡을 현실적인 세계로 묘사하였고, 안쪽 골짜기로 들어서면 자욱한 안개구름에 감싸인 채 영롱하고 붉은 복사꽃이 눈부시게 펼쳐지는 이상세계를 묘사하였다. 몽환적인 분위기와 도원을 마주했을 때의 희열이 느껴진다. <몽유도원도>는 안견의 뛰어난 필치 뿐만 아니라 집현전 학자들의 필체, 안평대군의 서체를 다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다. 현존하는 조선회화 최고의 걸작으로 불리는 <몽유도원도>는 1930년 일본의 국보가 되었다가, 현재는 일본 덴리대 중앙도서관에서 중요문화재로 소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문득문득, 갖가지 갈등과 고난을 겪는 번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이상향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다. 꿈꾸는 무릉도원은 어디에 있을까. 옛 사람들은 무릉도원이 바로 우리가 꿈꾸며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화원기」를 이야기하고 <몽유도원도>를 현실 밖으로 그려내지 않았을까. 이 봄날, 우리를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복숭아꽃이 화사하게



안견, <몽유도원도>, 덴리 도서관 (출처:브리태니커)

피어 평화로운 낙원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 유양에 있는 도화원 입구에는 '세상에는 두 개의 도화원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고, 또 하나는 충칭 유양에 있다.'라는 대련이 새겨져 있다. 팬데믹 시대를 벗어나고자 자꾸 어딘가를 두리번거리게 되는 요즘,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상향을 꺼내볼 때이다. 달콤한 향기와 하늘거리는 꽃비 속의 도원을 찾아가 볼까. 아니면 평화롭고 여유로운 마음속으로 떠나 볼까. 어디서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무릉도원이 아닐까. 🌸



필자미상, <신선 세계의 복숭아>, 국립중앙박물관

강현자 회원

상  
춘  
곡  
賞  
春  
曲

봄을 기다리며

“나는 워낙 추위를 타선지 겨울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계절의 추위도 큰 걱정이려니와 그보다도 진짜 추위는 나 자신이 느끼는 정신적 추위입니다. 세월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그러면 사람도 늙어가는 것이려니 생각할 때 오늘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무엇인가 더럽겁도 납니다. 하지만 겨울을 꺾충 뛰어넘어 봄을 생각하는 내 가슴에는 벌써 오월의 태양이 작열합니다.”

박수근, 「겨울을 뛰어넘어」, 『경향신문』, 1961.1.19.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전시 <봄을 기다리는 나목>(2021.11.11~2022.3.1)에서 보았습니다. 눈에 익은 반가운 그림들 사이, 미석美石 박수근이 전한 중년 남성으로서의 사회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순둥순둥한 인상인 그에게 그림만큼이나 오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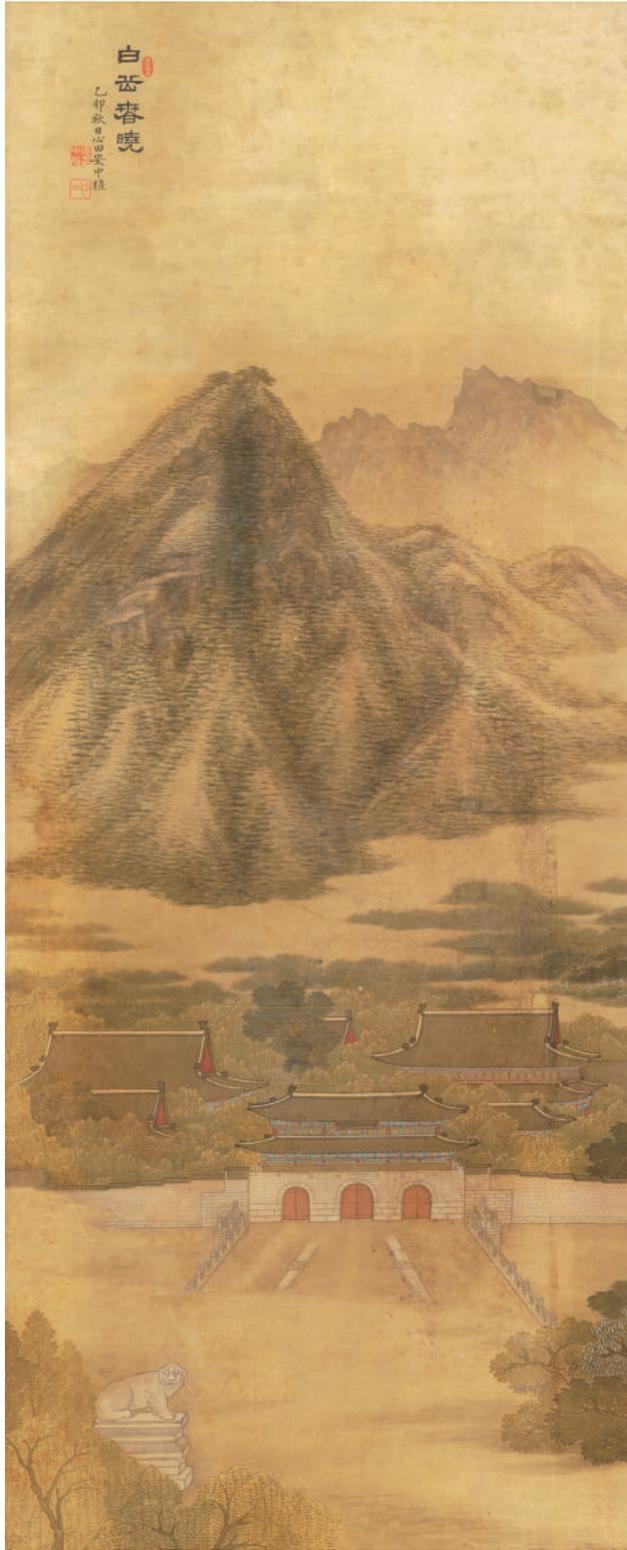
그는 석불이나 석탑 같은 석물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조형화했습니다. 캔버스나 판지에 물감을 여러 겹으로 쌓아올려, 우리 산하에 지천인 돌덩이 같고, 바짝 마른 나무 꺾질 같은, 우툴두툴하고 두터운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붉은 선으로 대상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눈, 코, 입의 묘사가 소략한 인물들과 이파리 하나 없는 나무들은 돌을새김을 한 듯 보입니다. 전생이 있다면 미석은 산 절벽에 천진난만한 미소의 부처를 새긴 백제의 석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온유하고, 관대하며, 말수가 적었다는 그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성을 그리려 했다고 합니다. 작품 속 인물들에 그의 인품이 배어 있다 느껴집니다.

한창나이인 쇠나, 짧기만 한 생이 애석하기만 한데, 그나마 그가 세상을 떠난 때가 한겨울이 아닌 꽃피고 새가 우는 오월인 것이 일말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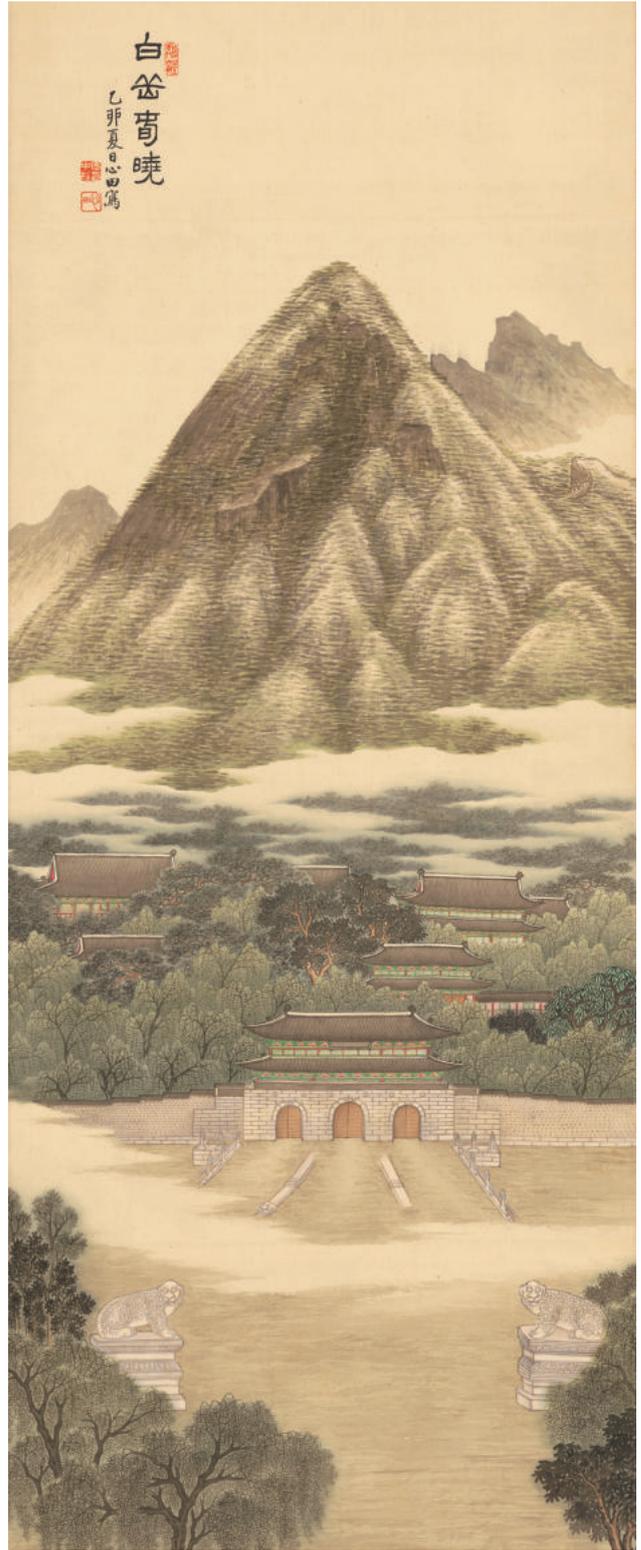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봄은 아직 멀건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에의 믿음이라리.”

박완서, 「나목」, 1976

낙엽을 끝낸 나목의 계절에, 코끝이 발개져 찾은 전시장에는 봄이 가까운 듯했습니다.



안중식, <백악춘효> 가을본, 국립중앙박물관



안중식, <백악춘효> 여름본, 국립중앙박물관



장승업, <기명절지도>, 국립중앙박물관

## 봄날 새벽에

때때로 말은 본디 뜻을 넘어 역사적 의미까지 지니게 됩니다. ‘봄’이 그러합니다. 긴 세월 봄이란 ‘겨울과 여름 사이의 계절’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로 근대 서화의 거장 심전心田 안중식(1861-1919)의 서거 100주년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마련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근대 서화, 봄 새벽을 깨우다> (2019.4.16~6.2), 그 주인공은 <백악춘효도白岳春曉圖>였습니다. 1915년 두 차례 그려진 <백악춘효도>는 ‘여름본’, ‘가을본’ 두 작품이 있습니다. ‘백악’은 ‘북악산’을 가리키고 ‘춘효’란 봄날 새벽인데 <백악춘효도> 속 계절은 봄이 아닙니다.

나란히 걸린 두 족자를 열핏 보면 바탕인 비단 색만 달라졌나 싶게 두 그림이 흡사하다 느껴집니다. 찬찬히 건주어보면 맑은 녹색과 불그레한 녹색의 수목이 주는 계절감, 미묘하게 달라진 화가의 눈높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화면 위로 백악이 우뚝하고, 가운데에는 새벽안개에 잠긴 경복궁의 근정전, 경회루, 광화문이 보이고, 아래에는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아 횡한 육조거리가 있습니다.

경복궁은 1915년 9월 3일자 『매일신보』에 시정 5주년 조선물산공진회 장소를 안내하며 실린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큼니다. 훼손된 상태가 아니라 조선이 강건했던

시기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조선의 ‘봄’을 아프도록 시리게 증언합니다.

제목과 소재에 독립을 염원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심전의 그림은 표현기법에서 익숙함과 낯설음이 교차합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닌, 근경, 중경, 원경으로 확장된 화면 구성, 능선과 골짜기의 윤곽선을 따라 짧은 필선을 반복하여 그린 북악산은 전통 시대의 관념 산수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광화문의 세 흥예문(아치문) 앞으로 뻗은 두 갈래 어도御道와 난간석은 서양의 투시도법이 적용되어 근대적 미감을 드러냅니다. 심전의 서화가 “동양화와 서양화를 함께 한다.”를 뜻하는 양양화관洋洋畵館으로 정의되는 이유입니다.

한 세대가 물러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전환점에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이 뒤섞이며 공존했던 우리 근대기, 봄에도 흑한기보다 더 매서운 바람이 불었을 듯합니다.



장승업, <기명절지도> 부분

## 화양연화花樣年華

봄의 상징에서 묵직한 역사성을 덜어내면 봄은 꽃이 됩니다. 지난해 꽃이 진 후, 까맣게 잊어놓고서는 처음 본 마냥 호들갑스럽게 반깁니다. 겨울나기를 끝내고 폭죽놀이하듯 여기저기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기운에 기분 좋은 취기가 돕니다.

〇〇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〇〇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모란의 자리에 동백, 개나리, 진달래, 벚꽃, 매화 같은 온갖 봄꽃을 넣어가며 김영랑의 시를 읊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찬란한 슬픔의 봄'은 색과 자태가 고고하기 이를 데 없는 목련을 위한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련木蓮은 가지 끝마다 딱 하나의 꽃송이를 피웁니다. 연꽃을 닮은 모양새가 정갈하고 자세는 꽃꽂입니다. 연꽃의 이름을 빌려온 목련은 '목필화木筆花'라고도 합니다. 부드러운 갈색의 털옷을 입은 꽃눈이 붓 모양이어서입니다. 문방사우 가운데 하나를 지녔어도 매·란·국·죽 사군자에 들지 않아 목련이 단독인 옛 그림은 보기 힘듭니다. 기명절지도와 화조화 속 목련은

행복을 뜻하며 '옥란玉蘭'이란 애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목련은 키가 현철합니다. 높이 올라야 꽃봉오리의 옆모습이 보이고, 더, 더 올라야 온 얼굴의 꽃봉오리가 보입니다. 조명을 켜 듯 환하게 무리 지은 꽃들이 환상적입니다.

花開昨夜雨 어젯밤 비에 꽃이 피더니  
花落今朝風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지네  
可憐一春事 가련하다, 한철 봄이여  
往來風雨中 비바람 속에 왔다 가는구나  
송한필, 「우음偶吟(우연히 짓다)」

어느새 봄 날씨 변덕에 겨워, 명주솜으로 누빈 듯 폭신한 목련 꽃잎들이 툭 툭 떨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 그렇다는 듯 이내 시들어 버립니다. 꽃잎과 똑 닮은 모양의 푸른 목련 잎들이 꽃 진 자리를 덮어가며 봄날은 갔습니다. 꽃과 잎을 떨구고도 의연했던 나목, 이를 기억하며 다시 돌아올 봄을 기다리려 합니다. 🌸

문정원 회원



이상범 등, <합벽 화조도>, 국립중앙박물관

## 봄을 찾는 마음

‘따뜻한 봄날’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봄도 처음은 춥다. 올해도 입춘날은 찬바람이 매서웠다. 하지만 아침 환기를 할 때, 바깥의 새 공기에선 벌써 봄 냄새가 풍겼다. 같은 추위라도 꽃샘추위라고 생각하면 그 추위가 예쁘다. 그래서 추워라, 추워라 하며 금세 창문을 닫고도, 집 안에 봄을 들인 것 같아 병싯병싯 웃음이 났다. 추리소설 속에서 복선을 간파한 독자처럼, 그날 이후 길을 다니며 자꾸 봄의 단서를 찾는다. 추위 속에서 봄을 찾는 마음은 옛사람들도 우리와 다름없이 품었다. 특히 앞장서서 봄을 알리는 꽃인 매화를 표현한 옛 그림들은 이 겨울 끄트머리를 건디는 날들에 다정스런 위로가 되어주기도 한다.

### 탐매, 추위 속에서 봄을 찾는 마음

박물관 정원을 지나다 언제 열릴지 모를 매화 꽃눈을 바라보다 보면 떠오르는 옛 그림이 있다. 18세기 사대부 화가 심사정의 <설중탐매도雪中探梅圖>이다. 이 작품을 처음 보면 알쏭달쏭함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제목에는 매화가 들어가 있는데 그림에는 매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당나라 때의 은거 시인 맹호연孟浩然(689-740)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그는 이른 봄이면 수도 장안 동쪽에 있는 파교라는 다리를 건너, 눈 쌓인 산속으로 매화를 찾으러 다녔다고 한다. 심사정은 나귀를 탄 맹호연이 파교를 건너려는 장면을 표현했는데, 맹호연과 시동을 둘러싼 겨울 풍경이 예사롭지 않다. 높이 솟은 바위산과 눈 쌓인 나무들이 이 일행에게 부쩍부쩍 달려드는 듯하다. 이 겨울 풍경은 도무지 꽃이 피었을 리 없는 엄동설한을 강조한다.



심사정, <설중탐매도>, 국립중앙박물관

그럼에도 맹호연은 태연자약하게 눈앞의 다리를 건너가고, 시동도 서글서글한 얼굴로 그 뒤를 따른다. 보람 없는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여유는, 그림을 보는 사람도 그림에 없는 매화를 떠올리며 빙그레 웃게 한다.

흔히 매화는 겨울이 끝나기 전에 봄이 올 것을 알려주는 꽃이라고들 한다. 탐매는 그 매화가



신잠, <탐매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봄을 알리기도 전에 먼저 찾아 나서는 행위이다. 눈 속에서 탁 터진 매화꽃 한 송이를 마주치는 것은 매서운 추위도 견디어 내는 매화의 고결함을 가장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상법이었을 것이다.

눈 쌓인 다리 저편에서 맹호연은 결국 매화를 찾아냈을까. 조선 전기 문인화가인 신잠申潛(1491-1554)이 그린 <탐매도探梅圖>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 작품은 오늘날 전해지는 탐매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그림 속 맹호연은 바위 사이에서 꽃을 피운 멋진 매화나무 한 그루로 다가가는 참이다. 매화는 하얀 호분을 콕콕 찍어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다. 멀리선 눈송이인지 꽃송이인지 모를 성근 나뭇가지 위의 저 흰 점들이 매화임을 알아본 시인은 말을 세우지도 않고 뒤에 따라오는 시동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이 작품의 재미있는 점은 인물 사이의 거리이다. 심사정 그림 속 시동이 씩씩하게 짐을 둘러메고 선비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것과 달리, 이 그림의 인물들은 한참 떨어져서 걷는다. 뒤를 돌아보며 재촉을 하는 주인과 그러거나 말거나 몽그적거리는 시동 사이에는 조금 불만스런 긴장이 맴돌고 있다. 시동의 초점 없는 눈빛과 맥없는 팔을 보면 '매화고 뭐고 집에 가고

싶다.'는 나지막한 불평이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다. 세로로 긴 화폭 안에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나타낸 심사정과 달리, 신잠은 가로로 펼쳐지는 화면 위에 사람 사이의 심리적 온도 차를 그려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딱 그림 속 거리만큼 멀다.

푸른 댓잎 위로 매화가 활짝 핀 바위로 다가가는 맹호연과 달리, 시동은 여전히 눈을 둘러쓴 겨울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림 오른쪽 끝을 보면 또 다른 매화나무 가지가 있어, 맹호연 옆의 매화가



<탐매도>의 시동



전기, <매화초옥도>, 국립중앙박물관

이들이 오늘 처음 본 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함께 눈 속에 핀 매화를 발견하고도, 시동은 좀처럼 감흥을 느끼지 못한 모양이다. 같은 눈길 위를 걷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계절에 있다. 누군가는 초봄에, 누군가는 늦겨울에 사는 이 그림을 보고 나면 나는 지금 나를 둘러싼 세계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 매화서옥, 독훤연의 시간

조선 말기에 유행한 매화서옥梅花書屋은 매화에 둘러싸인 작은 집에 선비가 앉아 책 읽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전기田琦(1825-1854)가 그린 <매화초옥도梅花草屋圖>는 산을 뒤덮다시피 만개한 매화 군락이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이 주제는 벼슬과 결혼을 마다하고 산속에 은거하며 매화를 키웠다는 송나라 시인 임포林逋(967-1028)의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방문객이 오면 학이 날갯짓을 해 알리게 하고, 술 생각이 나면 사슴 목에 술병을 걸어 산 밑으로 술심부름도 보냈다는 이 자연인은 별명도 범상찮다. 매화를 너무 좋아해서, 집 주변을 빙 둘러 삼백 그루나 되는 매화나무를 심고 가꾸는 바람에, '매화밖에 모르는 바보(梅痴)'라고 불렸던 것이다.

어느 봄날 저녁, 임포가 서호西湖 위로 드리운 매화를 보고 지은 연작시 「산원소매山園小梅」는 매화를 노래한 문학 작품 가운데 으뜸으로 꼽힌다. 특히 그윽한 향이 달빛 위로 떠다닌다는 "암향부동월향흔暗香浮動月黃昏"이라는 구절은 가만히 그 일곱 글자를 읊어보기만 해도, 천 년 전 시인이 느낀 황홀한 정취가 마음속에 되살아난다. 안중식安中植(1861-1919)의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에서 뱃놀이를 하는 인물도 이 구절과 같은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어스름에 물에 비친 달빛과 매화를 바라보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자 수면의 물그림자와 함께 고요히 일렁이는 매화의 깊은 향기에 감탄 하는 순간.



안중식, <매화서옥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한편 조선말인 19세기에 활동한 김수철金秀哲이 그린 <설루상매도雪樓賞梅圖>는 시원스런 세로 구도를 맑은 담색으로

채운 그림이다. 절벽 위에 지은 작은 집에서 혼자 하염없이 매화를 바라보는 인물. 점과 선으로 대담하게 묘사한 자연 속에서 사람이 지은 집과 다리는 더없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돋보이는 것은 고독이다. 안중식이나 전기의 그림과 달리, 김수철의 그림에는 산속의 집을 찾아오는 다른 이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높이 솟은 설산으로부터도, 강 너머 작은 마을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림 속 인물. 화면 가운데를 넓게 흐르는 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은 철저하다기보다는 충분해 보인다.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산속 작은 누각 안에 앉은 저 인물이 스스로 고립되기를 택한 것임을 알게 된다.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오직 눈 속에 핀 매화와만 가깝고 친한 그에게서 느껴지는 편안함 때문이다.

임포의 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많던 꽃 다 졌건만 홀로 환히 곱다는 첫 구절이다. “중방요락독흰연衆芳搖落獨暄妍.” 모든 꽃이 다 떨어지고 없는 때에 피어나는 독흰연獨暄妍이야말로 매화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선언처럼 여겨진다. 임포가 그토록 매화를 사랑했던 이유는, 우르르 때를 함께하는 다른 꽃들 없이도 제 필 때를 지키고 홀로 피고 지는 꽃의 자존自尊을 닮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앞서 살폈던 심사정과 신잠의 탐매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붉은 호리병이 보인다. 병 안에는 필시 눈 속에서 몸을 덥혀 줄 맑은 술이 들어 있을 것이다. 활짝 핀 매화를 구경하며 차와 술을 즐기는 것을 매화음梅花飲 이라고 한다. 그 짙은 향을 맡고 또 마시는 자리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봄 우리가 기다리는 매화음은 혼자만의 마음자리를 살피는 것이어도 좋을 것 같다. 왈자함 없이 부대낌 없이, 오직 함박눈처럼 눈앞을 채우는 매화꽃하고만 보내는 독흰연의 시간. 가만히 각자의 마음 안에 자리를 펼치고 그 향을 깊숙이, 더욱 깊숙이 들었으면 한다. 그 향은 계절 사이에 놓인 파교 위를 날아, 봄 찾을 줄 모르고 웅크렸던 우리의 마음까지 불 밝힌 듯 환하게 흔들어 깨울 것이다. 🍵

신지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연구원



김수철, <설루상매도>, 국립중앙박물관

# 샤니라크에 햇빛 비칠 때



침불락

한때 우리는 나라 밖 원하는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그런 이동의 자유를 귀한 줄 모르고 누렸지요. 그해 여름 카자흐스탄의 풍요로운 도시 알마티로 모험을 떠난 일은 우연이 아니라 호기심과 단편적 지식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습니다. 2018년 여름 <간의 제국 몽골> 특별전과 초겨울부터 시작된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특별전은 강력한 힘으로 저를 유라시아 초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북방으로 떠나는 시기는 아무래도 여름이 낫겠지요. 철새들처럼 우리도 무더운 서울을 떠나 북서쪽으로 날아서 텐산 산맥을 가뿐히 넘어 알마티 공항에 내렸습니다. 꼭대기마다 만년설을 엮고 끝도 없이 이어진 산맥은 신성한 분위기가 감돌았지요. 예로부터 초원의 주민들에게 그 높은 산들은 빙하가 녹은 물을 흘려 보내 수많은 강과 호수를 만들어주고 가축들을 먹일 초지를 제공해왔습니다.

텐산 산맥에 올라보는 좋은 방법은 알마티가 사랑하는 중앙아시아 최고의 스키 리조트 침불락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8월의 스키장은 슬로프에 눈 대신 온갖 들꽃이 만발하고 시원한 산공기를 찾아온 지역 주민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산맥의 발목 정도까지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 만에 무릎 즈음에 내리면 거기 리조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본격 산중입니다. 거기서 스키어들을 위한 케이블카를 타고 더 올라가면 해발 3,400m 지점에 황송하도록 쉽게 도착할 수 있어요. 먼 봉우리들이 머리에 인 만년설이 훨씬 가까이 보이고, 예민한 사람은 산소가 희박해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텐산산맥의 최고봉 포베다산(해발 7,439m)의 높이를 감안하면 아직 허벅지에 불과한 높이지요.





침볼락



샤니라크

산 위의 리조트에서 숙박한 다음날엔 고대하던 대로 유르트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새 감사하게도 현지인 친구를 사귀어서 유르트 숙소를 소개받았어요.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한 그곳은 상상과 달리 산중턱 마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부르자면 계곡가든이랄까요? 사람들이 유르트를 빌려서 행사를 치르고 식사도 하고 수박 파티도 벌이던데 나중에 보니 잠은 다 집에 가서 자는지 유르트에서 묵는 손님은 우리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묵는 유르트는 걸으면 아담해 보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상당히 널찍해서 예닐곱 명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문에서 가장 먼 곳이 상석이라는데 그 쪽 침상에서 잔 친구는 중간에 두어 번 천장에서 거미가 내려왔답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다 뿐이지 안에 전등도 콘센트도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어요. 유르트의 뼈대가 되는 붉은 나무살은 견고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벽을 두른 펠트와 바닥에 넉넉히 깔린 양탄자들 덕분에 아주 아늑한 공간이었지요. 여름에는 유르트 벽을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바람이 통하게 한다더니 정말이더군요. 산중이라서늘해서 옷을 꺼입고 양털 이불을 잘 덮고 자야 했는데 한옥에서 외풍 즐기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주 개운했지요.

유르트 천장 한가운데 샤니라크가 자리하는데, 안에서 불을 써서 조리를 할 때는 환기 구멍이 되고, 평소엔 밖에서



유르트 내부

덮어서 달아 둡니다. 펠트와 나무살은 낡으면 교체하지만 저 동그란 구조물은 대대로 물려주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카자흐어로 샤니라크는 가정 또는 가정의 화덕, 씨족의 존속을 의미하지요.

아침에 눈을 뜨니 저 공간만 밝아지며 동이 튼 것을 알려 주는데, 하늘신(텡그리)을 믿는 유목민들에게 저 동그란 창이 어떤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카자흐인들이 제정 러시아에 이어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강제로 유목을 포기하고 정주하게 되었지만 유목 생활의 상징인 유르트는 여전히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루무한베토프 연구실



이식 박물관

드디어 황금인간과 이식 쿠르간을 보러 길을 나섰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서 부탁하니 우리가 원하는 코스를 돌아 줄 기사와 영어 가능한 가이드를 구해주었어요. 만나고 보니 안전벨트도 없고, 에어컨은 물론 없고, 심지어 계기판 바늘도 없는 고물차를 몰고 온 스무 살 남짓 두 청년이었는데, 카자흐스탄 최신 가요를 쿵작쿵작 틀고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이식 박물관은 80여 기의 쿠르간들이 자리한 드넓은 평지에 단출하게 서 있었습니다. 2,500여 년 전 카자흐스탄, 더 넓게는 중앙아시아에서 감속회랑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고깔모자를 좋아하는 사카인들이었습니다. 사카는 페르시아인들이 부르던 이름이고 헤로도토스를 비롯한 그리스인들은 이들을 스키타이라고 불렀지요. “도시도 성채도 짓지 않고” 생존을 위해 흩어져 이동하는 이들은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황금을 사랑하고 세공기술도 발전시켰지만 자기 한 몸에 지닐 만큼 이상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분에도 단별로 살았답니다. 대신 옷과 모자와 신발에 정교한 동물문양 금장식을 달았는데, 황금인간이 바로 그 찬란한 예입니다.

1969년 이식 지역에는 자동차 공장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안에 문제의 고분이 있었지요. 직경 58m에 높이가 4.5m에 이르는 거대한 쿠르간의 주곽은 예전에 도굴이 끝난 상태여서 발굴가치가 없다고 여겨졌고 공사 허가는 곧 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

독 조사팀의 일원인 고고학자 누루무한베토프는 이곳에서 나올지 모르는 유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1970년 4월, 그의 고집대로 다시 발굴이 재개되고 2주 만에 주곽 서쪽에서 전혀 도굴되지 않은 황금인간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지요. 그는 총 4,000점에 이르는 황금 유물을 초인적인 세밀함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발굴을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국보가 된 이 황금인간 발굴의 공은 당시 알마티 고고학연구소 소장인 키말 아케세프가 오롯이 차지했지만, 그 이후로도 이식고분의 보존과 관리에 평생을 바친 사람은 누루무한베토프였습니다. 지금 같은 온전한 복원도 그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식 박물관에 와서 창 밖으로 쿠르간이 바로 보이는 이분의 자그마한 집무실과 생전에 입었던 수수한 옷과 답사 배낭을 보니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박물관의 일부가 되어 여전히 황금인간을 지키고 계셨어요.

박물관에서 나온 우리는 평지에 흩어진 쿠르간들을 잘 보고 싶은 욕심에 봉분 하나에 염치 좋게 올라갔습니다. 정상부는 폭 꺼진 것이 도굴의 흔적을 보여주었고 키 작은 나무도 하나 자라고 있었어요. 주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과거 오아시스 도시의 흔적, 바자르에도 들렸습니다. 알마티 시내에 있는 그린 바자르는 규모와 분위기가 우리의 남대문시장 격으로 없는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한여름답



이식 쿠르간

계 시장엔 온갖 과일이 풍성했는데 수박과 멜론은 똑바로 세우고 작은 과일들도 높이높이 고여 진열하니 우리네 잔칫상 같아서 마음이 설렸습니다. 견과류 파는 상인들은 어찌나 상술이 노련하던지 혼을 빼놓는 통에 저도 모르게 상당한 양을 사게 되었어요. 주는 대로 계속 맛을 보다가는 얼마나 더 사게 될지 몰라서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자리를 떴지요. 시장의 목 좋은 위치에는 고려인 아주머니들이 온갖 낯익은 반찬들을 놓고 파시는데 반가웠습니다. 대대로 육식파인 이곳 사람들에게 온갖 야채 먹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돌아오며 생각하니 우리가 만난 카자흐인들은 눈을 마주쳐주고 친절했습니다. 우리를 자기들 중 하나로 봐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한국인이란 걸 알면 그걸 또 반가워해주니 고마웠습니다. 그 넓은 땅의 역사처럼 인종은 이란계,

투르크계, 몽골계가 고루 섞여서 사람들 얼굴에서도 동서양이 교차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이 정겨운 나라에 관해 올해 초부터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러시아의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자흐스탄은 그 이름부터 자유인들의 땅이니깐요!

다음 번엔 초록색 구름마다 야생 툼립이 고개를 내미는 4월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 즈음엔 이란으로 월동을 갔던 홍학들도 아스타나 주변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카자흐인들의 샤니라크가 높이 올라가기를! 생명의 여신이 보살펴 주고, 땅의 아버지가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

황문영 회원



그린 바자르



#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덜 정돈된 골목길에 서면 오래된 두근거림이 좋다. 그 길 끝에 쪼그리고 앉아 손장난 하는 아이라도 만나는 날엔 무거웠던 걸음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진다.

미술관 벽면 살바도르 달리의 <머리에 구름이 가득한 커피>은 캔버스가 변형된 초상화 모양 프레임 안에 모여드는 구름의 형태와 정물들이 그려져 있다. 달리는 자신과 자신의 뮤즈인 아내 갈라를 묘사한 것이라 했다. 머리에 먹구름이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에 자세히 들여다보다 시선을 거둔다. 아! 프레임의 실루엣이 밀레의 <만종> 속 기도하는 농부 부부를 닮았구나. 골목길에서 만난 경쾌한 박동이 손끝에서부터 올라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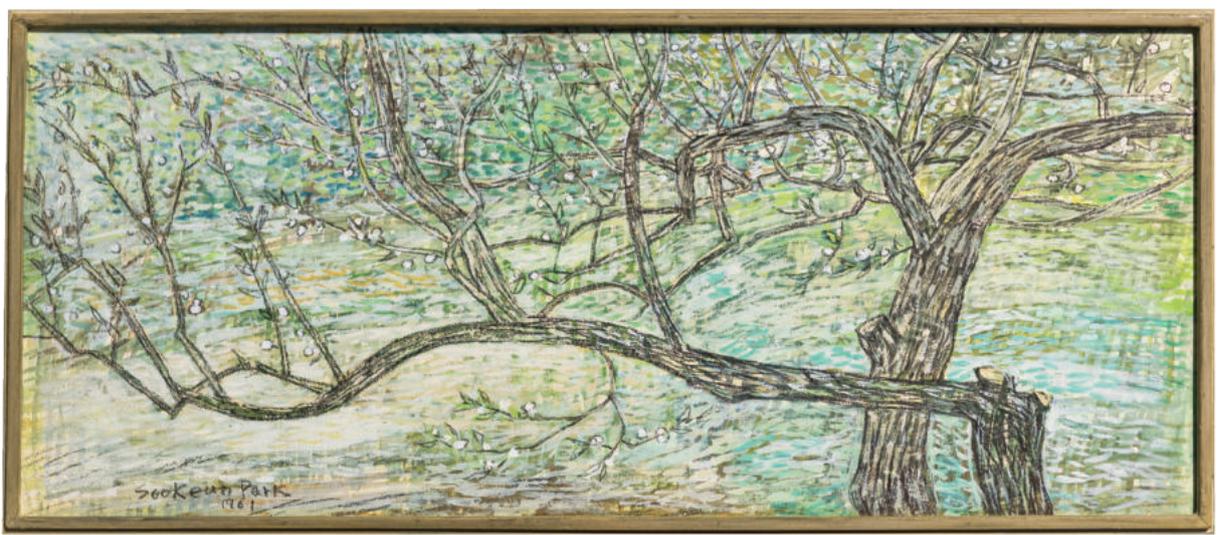
밀레는 땅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농민들의 숙명적인 노동을 표현했는데, 빈센트 반 고흐와 살바도르 달리도 그림이나 글을 통해 그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 밀레를 닮고 싶었던 화가 박수근도 <만종>의 땅에 놓인 '불품없는 감자'를 잘 씻어 씻을 도려내고 오래 사용해서 닳은 도마 위에 식칼과 함께 그렸다. 한때 농민화가를 꿈꾼 빈센트 반 고흐는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 식사하는 농부들을 그렸다. 불빛 아래에 농부를 닮은 정직한 손이 들고 있는 감자는 고흐가 보여주고 싶었던 생명력이 아닐까? 가난한 시대를 살면서, 독학으로 그림 자료를 모아 공부한 박수근의 시선이 농민 삶을 주제로 한 고흐에게 닿았음을 엿볼 수 있다.

박수근의 전 생애를 보여주는 전시가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어 그리로 향한다.

박수근, <정물(靜物)>, 1952, 하드보드에 유채, 26x52cm, 개인소장



맷돌질, 절구질, 빨래처럼 노동에 집중하는 그림 속 일하는 여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각도를 움직여 이리저리 살펴봐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여인들도 <만종>의 기도하는 여인을 닮았다는 생각도 잠시, 가사와 생업에 지친 고단함이 코앞으로 다가온다. 남자들의 일자리가 귀해서 더 고달팠던 여인들의 모습에 위로를 보내는 '선한 눈의 화가가 화폭을 돌 삼아 돌을 쪼듯이 힘과 정성을 다해 그린 것'이 아니었을까.



박수근, <고목(古木)>, 1961, 종이에 수채, 색연필, 23x52cm, 개인소장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박완서 작가가 '나의 작은 보석'이라 애정하던 <나무> 앞에 선다.

그는 왜 꽃 피거나 잎 무성한 나무를 그리지 못하고 한결같이 잎 떨어진 나뭇가지만 그렸을까.

내 흥폐한 마음엔 마냥 춥고 살벌하게만 보이던 겨울나무가 그의 눈엔 어찌 그리 늠름하고도 숨 쉬듯이 정겹게 비쳐졌을까. - 박완서, 『보석처럼 빛나던 나무와 여인』,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현대문학, 2010) 중에서

박완서는 화려한 별세계였던 PX 점원으로 미군들에겐 아양을 떨고, 초상화가들에겐 교만하게 군림하며 삶의 밑바닥까지 전락했다 생각했다. 그렇게 불행감에 빠진 여인 박완서에게 수줍게 화집을 내보이며 선량한 다독임을 건네던 화가는 봄을 기다리는 나뭇가지와 닮았다. 한가운데 중심을 잡듯 당당하게 서 있는 겨울나무는 가지를 넓게 펼쳐 두 여인을 위로하듯 선하게 품어주고 있으니 말이다.

기다림의 답처럼 두 그루의 <고목>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화폭 오른편에 뿌리내린 나무가 꿈틀거리며 뺨어 나가는 가지 끝에 흰 꽃망울이 맺혔다. 그 생동감으로 보아 이른 봄날인가 보다. 가로 세로 가는 필선을 반복한 독특한 질감에 화사한 채색을 더한 수채화에서 평소 색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던 화가의 또 다른 개성이 풍겨 나왔다.

전시실의 관람객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작품이 있다. <바위와 새> (부제:사랑), 시인 김후란이 시화전을 열었을 때 박수근이 선물한 것이란다. 눈사람처럼 이층으로 쌓아올린 바위 위에 두 마리 파랑



박수근, <나무와 두 여인>, 1962, 캔버스에 유채, 130x89cm, 리움미술관



장옥진, <까치>, 1958, 캔버스에 유채, 42x31cm, 자료제공 (재)장옥진미술문화재단

새가 서 있다. 거친 돌 같은 화  
 쪽을 가득 채운 바위는 얼룩 같  
 은 초록으로 생기를 더하고 바  
 위를 새긴 직선은 곡선의 굴림  
 이 편안하다. 사랑, 지저귀는 파  
 랑새들의 사랑일까, 파랑새의  
 휴식을 허락한 바위와 파랑새의  
 사랑일까?



박수근, <바위와 새>, 1964, 하드보드에 유채, 22.5x15.8cm, 박수근미술관

바위와 새처럼 소박한 자연과 일상적인 이미지를 정갈하게 화쪽으로 옮기는 으뜸은 장옥진 화가이다. '작은 공간을 자기 식으로 쪼개고 꾸미는' 화가의 정직한 고백은 작은 소망처럼 그림에 담겨 있다. 그를 기리는 양주시립장옥진미술관은 <호작도>와 <집과 아이>의 모티브로 지어졌다. 가운데 중정이 있고 머리와 꼬리 부분에 방이 있는 독특한 구조는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순백의 하얀 집은 '나는 심플하다.'를 외쳤던 화가를 닮아 고집스럽게 깨끗하다.



양주시립장옥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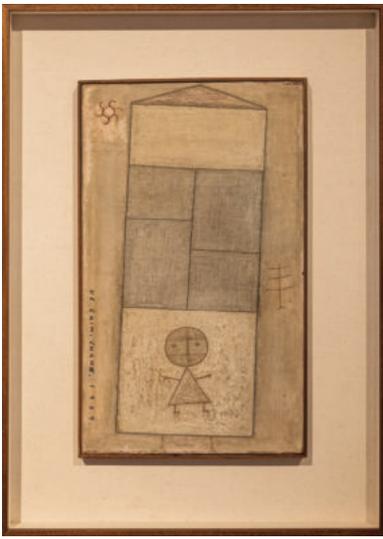
장옥진의 그림은 가족과 집과 자연과 함께한다.

오직 작품 세계에만 집중하기 위해 화가는 1963년 덕소를 시작으로 명륜동, 수안보, 마지막으로 머문 용인까지 네 곳을 지나오며 화실을 꾸몄다. 고요한 새벽 산책에서 자연과 내적 대화를 위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부>에서 화가는 숲과 새와 함께 강에 배를 띄우고 '자연의 아들'로 살아간다.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정취가 가득한 자연의 질서를 보여준다. 단순한 선과 색으로 묘사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언제나 쉽지 않은 것 같은 가치를 일깨운다.

덕소에 공장이 들어서며 1975년 명륜동에 새 작업실을 꾸민 화가는 마당에 연못을 만들고 이영을 엮은 정자를 세웠다. 정자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려는 소망은 이 시기 작품에 녹아 있다. 먹으로 그린 것 같은 유화 <초당>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정자에 앉은 두 사람과 그 앞에서 차를 달이는 아이가 보인다.

정자 뒤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있고 그 아래 한 사람이 쉬고 있다. 붉은 해가 떠 있는 하늘엔 커다란 새가 날고 있다. 밀도 높은 현대판 문인화를 보는 것 같다. 국어학자 이희승이 '관어당觀魚堂'이라 이름



장옥진, <집과 아이>, 1959, 캔버스에 유채, 45.5x27cm, 자료제공 (재)장옥진미술문화재단



장옥진, <어부>, 1968, 캔버스에 유채, 20.5x33.5cm, 자료제공 (재)장옥진미술문화재단

지는 정자 현판이 현재 용인 고택 정자에 걸려 있다. 본다는 뜻만 알고 있던 '관觀'자가 '눈과 귀를 그려 합성한 상형으로, 귀로도 사물을 본다는 동양적 사고방식'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땐 귀로 보아야 하나? 생기가 없어지고 시간의 거푸집이 좁아질 때 장옥진 화가의 그림 앞에 서면 마음이 환해진다. 그래도 이내 홀로 짓는 표정은 여전히 어렵다.

'안다는 경지가 밑바닥부터 알고 촉감부터 알아야 할 것이며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을 철저히 보아주어야 할 것이다. 착실히 그리고 철저히 그려면서도 친절하게..... 표현이 쉽고도 어려운 것은 자기를 내어놓는 고백이 되기 때문이다.'  
- 장옥진, 「표현」, 『동아일보』, 1969.4.10.

표현에 대한 화가의 글을 읽고 '몸과 마음을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려서 다 써버릴 작정'으로 토해낸 그의 작품 앞에 선다. 그래. 미로 같은 골목길에 홀로 버려진 느낌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골목을 비추는 햇빛이 좋고, 시원한 바람도 스치고, 작은 집이 있고, 사람과 강아지와 고양이가 살고, 꽃과 나무도 숨 쉰다. 어디선가 까치로 돌아온 장옥진 화가가 잃어버린 길을 찾아줄지도. 🐱

정은정 회원

\* 박수근연구소는 화가 박수근의 저작권, 박수근아카이브를 통한 작품확인서 발급, 그 외 학술연구 및 출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수근연구소 대표 박진흥(010.9304.5587)  
\* 주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57번길, 2-72  
\* 이메일 : jinhpicasso@naver.com



장옥진, <초당>, 1975, 캔버스에 유채, 27.5x15cm, 자료제공 (재)장옥진미술문화재단

# 그들이 울고 울렸을 때

-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지붕(국립청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동행 30년』)



호랑이 모양 허리띠 고리

국립청주박물관 탐방기를 쓰겠다고 처음 생각했을 때는 서울에서 한 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가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지난 12월 어느 날, 그래도 너무 모르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설전시실이 닫혀 있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지요. 미리 확인한 덕에 헛걸음은 면한 데다 재개관 예정 날짜가 가까워서 새 단장한 전시실을 볼 수 있으니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데이 며칠 전, 혹시나 해서 접속한 홈페이지엔 개관일이 1월 27일로 미뤄졌다는 공지가 떠 있었어요. 이번에도 헛걸음을 면해서 다행이지만 그날은 설 연휴 직전인데, 연휴가 끝나고 며칠 후엔 글 마감일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또 연기되면 어찌지? 청주는 다음에 가고, 이번엔 다른 박물관을 갈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예정대로라면 따끈 따끈한 새 전시실을 볼 수 있잖아요.

드디어 2022년 1월 28일, 설 연휴 시작 하루 전에 국립청주박물관 앞에 섰어요. 1995년쯤에 여기 왔었다는 사실 외엔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첫 방문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그때 도대체 뭘 하고 갔던 걸까요?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가는 길에 청동으로 된 북 같은 조형물이 보였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징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길 바라면서 손으로 쳤더니 땡 소리가 아니라 텅 소리가 났어요. 그럴 줄 알고 한 짓이지만 왠지 섭섭했어요.

박물관 건물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옛 국립부여박물관이었어요. 동아일보에 김종업과 번갈아 기고하며 왜색 논란에 대한 지상논쟁紙上論爭을 벌여서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무엇이 한국적인가?”라는 큰 화두를



청주 윤천동 출토 동종, 국립공주박물관 풍탁



거는 향로

던져 준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이요. 아니나 다를까 국립청주박물관도 그의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부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건물이 연상됐던 이유는 단지 기와지붕 형태가 비슷했기 때문이었어요. 산자락에 나지막한 건물들이 층을 이루며 겹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단지 지붕이 기와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한옥의 개념을 잘 반영한 것 같았어요. 축대 위에 앉아 있는 건물 사이로 꺾어져 올라가는 길을 걸으면서 건축가가 영주 부석사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반드시 기와지붕을 얹은 콘크리트 한옥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시절 건축이지만 지금 봐도 참 괜찮았어요. 나중에 검색해보니 전통 건축을 잘 구현했다는 좋은 평들이 많더라고요. 왜색 논란은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고 치열한 논쟁 중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법한데도 십여 년이 지나 이렇게 실한 열매를 맺은 걸 보니 거장은 역시 거장인가 봐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옷한 충청남도에 있는 공주, 부여, 익산의 국립 박물관은 백제의 고도였다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서 방문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보게 될지 대충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립 청주박물관이 관할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마한 이었다가 백제였다가 고구려였다가 신라가 되고, 청주는 궁예의 연고지였다가 견훤에게 점령당하고, 충주 호족의 딸은 왕건의 왕비이자 광종의 모후가 되기도 하면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역사상 존재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쳐간 지역이라 과거의 어느 국가가 이곳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기는 힘들 거예요.



사뇌사 출토 유물들

결국 편견도 없지만 아는 것도 없이 일단 관람해보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대부분의 역사 박물관처럼 이곳의 관람 동선도 선사시대 유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석기들이 보석가게 진열장 같은 곳에 가지런히 누워 있는 덕에 바로 위에서 가깝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를 들어 아직도 날이 서 있는 스페찌르개 같은 것이요. 말 나온 김에, 바로 전날부터 충북 단양 수양개 출토 스페찌르개가 세계 최고最古라는 방사성 탄소연대측정 결과를 실은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왔었다는 것을 나중에 검색으로 알고선 근거 없는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다음 전시실로 들어서면서 제가 눈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늘 그렇듯이 시대순인 줄 알았는데, 금속 이전의 삶과 금속 이후의 삶을 나누어 놓은 것이었어요. 백제의 것이라고 적혀 있지만 어쩌면 일본 장수의 것일지도 모르는 음성 망미산성의 판갑옷, 특이하게도 꼬리에 새끼를 태우고 있는 오송의 호랑이 모양 허리띠 고리, 저 북쪽 부여의 영향을 받아 청동 손잡이에 돌기를 만든 검 등 흥미로운 유물들이 있었지만, 유독 저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녹슨 쇳덩이들을 쌓아 놓은 것이었어요. 이런 것은 철의 제국 가야를 내세우는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많이 봤던 덩이쇠인데, 이런 것이 여기에도? 알고 보니 이 지역도 유서 깊은 철의 고장이었더라고요. 이거 저만 여태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이런 건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유명해져도 될 것 같아요.

이곳의 정점은 세 번째 전시실이었어요. 금속 공예품들을 시대순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배치한 공간이었어요. 누군가의 무덤에서 나온 수저 같은 생활유물부터 현재 세 점밖에 남아 있지 않은 통일신라시대 종 중에 하나인 청주 운천동 출토 동종까지 금속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반가운 것을 만났어요. 올라오던 길에 마당에서 텅 소리를 내던 그것과 비슷한 쇠북이었어요. 금고金鼓, 반자飯子, 금구禁口라고도 부르는 청동으로 만든 북이에요. 절에서 급한 일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썼다고 해요. 이런 것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밖에서 봤던 조형물은 '흥덕사'가 새겨진 쇠북을 모델로 만든 것이었어요.



계유가 새겨진  
아미타 불비상





금강저와 금강령

이 북이 발견된 덕에 『직지심체요절』을 만든 흥덕사터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찢어져 있어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 외에도 불교 유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고려시대 사뇌사思惱寺의 유물들이 유독 다양하고 많았어요. 1993년에 청주 무심천변 제방도로 확장공사차 전신주를 옮기다가 누군가가 한꺼번에 묻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400점이 넘는 유물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덕이었지요. 보아하니 대채의 큰 절이었을 것 같은데 무슨 사연으로 절은 없어지고 유물들만 묻히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나마 이렇게 애썼던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금속을 주제로 전시를 풀어나가는 중이지만 전시실 한쪽 불비상들이 모여 있는 별실을 그냥 지나치면 아쉬울 거예요. 다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것들이지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불비상은 모두 옛 연기군(현 세종시) 일대에서만 발견되는 데다가 조각 솜씨도 비슷해서 연기파 불비상이라고 부른답니다. 문득 돌로 된 유물과 금속으로 된 유물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금속은 돌보다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서 재활용률도 높지요. 단기간에 금괴가 되어 버린 잉카의 찬란했던 금세공품들처럼. 그러니 과거의 금속 유물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또 반가운 조형물이 보였어요. 전시실에서 인상 깊게 봤던 충주 송선사 풍탁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그제야 들어가던 길에 본 쇠북과 함께 느린 우체통 용으로 만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쓸데없는 짓인 걸 알면서도 또 손으로 때려 봤어요. 역시 또 텅 소리가 났지요. 아니란 걸 알면서도 저는 왜 자꾸 금속 소리를 기대했을까요? 처음에 그들을 존재하게 했던 이유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

서유미 회원



흥덕사를 새긴 쇠북

# 2022년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안내

## ① 45기 박물관 특설강좌

박물관 특설강좌는 1977년부터 시작되어 40년 넘게 진행되어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b>모집인원</b>	화요일: 200명 목요일: 200명
<b>강좌내용</b>	역사학, 미술사, 사상사, 박물관학, 전시실 교육 등 총 30강 진행
<b>수강기간 및 시간</b>	2022년 4월~11월 (매주 1회, 14:00~17:00)
<b>참고사항</b>	특설강좌 수료 후에는 박물관 연구강좌 등을 통해서 한층 심화된 주제와 내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 ② 연구강좌 ※ 수강기간: 4월~12월(강좌별 15회)

강좌명	강의주제	강의시간	강사
연구강좌1	조선시대의 역사 II	1·3주 화요일, 10시~12시	한명기(명지대)
연구강좌2	한반도 고대도시와 국가의 탄생	1·3주 화요일, 14시~16시	윤선태(동국대)
연구강좌3	파라오와 신들의 나라 이집트	2·4주 화요일, 10시~12시	곽민수(이집트학)
연구강좌4	동아시아 근현대미술사	2·4주 화요일, 14시~16시	정하윤(이화여대)
연구강좌5	서양사 깊이 읽기 II	1·3주 수요일, 10시~12시	박재욱(신라대)
연구강좌6	성서, 미술을 만나다	2·4주 수요일, 10시~12시	정은진(이화여대)
연구강좌7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1·3주 목요일, 10시~12시	노경덕(이화여대)
연구강좌8	푸른 초원이 전하는 이야기	2·4주 목요일, 10시~12시	강인옥(경희대)

## ③ 테마강좌 ※ 수강기간: 3월~12월(강좌별 10~15회)

강좌명	강의주제	강의시간	강사
테마강좌1	서양미술의 시대사 I	매주 수요일, 14시~16시	김향숙(홍익대)
테마강좌2	서양미술의 시대사 II	매주 수요일, 14시~16시	김향숙(홍익대)
테마강좌3	예술, 도시를 만나다 I	매주 목요일, 10시~12시	전원경(세종사대)
테마강좌4	예술, 도시를 만나다 II	매주 목요일, 10시~12시	전원경(세종사대)

- ◎ 사회교육 전 강좌는 유료이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진행합니다.
- ◎ 연구강좌는 특설강좌를 수료한 회원만 수강 가능합니다.
- ◎ 사회교육 수강신청은 홈페이지 및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fnmk.org](http://www.fnmk.org) / 문의: 02) 2077-9790~5



금동 곰모양 상다리, 평양 석암리9호분, 부여 삼한실

## 우리는 개구리가 아니오

흘깃 보고선 오해하지 마시오.

우리들의 귀를 개구리 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들의 눈은 개구리 콧구멍이 아니오.

날카로운 이빨이 안 보이시오?

옛 사람들은 우리를 숭배했었다고.

비록 쳐든 앞발로 상다리를 받치고 있었지만

엄연히 우리들은 용맹스러운 곰이오. 🐻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홍종인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김일환, 이대원, 김상만, 김성진, 정진숙, 김영수, 유상욱, 유창종, 김정태, 신성수 회장을 거쳐 2020년 11월 윤재륜 회장이 취임했다.

- 회 장 윤재륜
- 부 회 장 박은관 윤석민
- 상임고문 신성수
- 당 연 직 민병찬
- 이 사 김석수 김신한 김현전 남수정 박성전 박선주 박진원 우찬규  
유승희 이옥경 정용진 조현상 최두준 허용수 홍정욱
- 감 사 김교태 이교상
- 사무국장 이재범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기부회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백호회원

삼성전자

## 주작회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윤광자 회원

## 현무회원

박은관 (주)시몬스 회장

## 천마회원

김석수 동서식품(주) 회장  
김신한 MIT Visiting Fellow  
남수정 (주)편앳푸드 사장  
박진원 두산산업차량(주) 부회장  
배동현 창성그룹 부회장  
손창근 소장가  
송치형 두나무 회장  
신성수 고려산업(주) 회장  
신현철 SK에너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윤장섭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윤재륜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이옥경 서울옥션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전재범 금강공업(주)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최신일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최두준 (주)동남유화 회장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허운수 (주)알토 대표이사 사장  
홍석조 (주)BGF리테일 회장  
홍정욱 을가니카 회장

## 금관회원

강덕수 전 (주)STX 회장  
경 원 극락사 주지  
권준일, 구재선 Actium Group 부회장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남연 (주)동훈 대표이사  
김승겸 서용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김지연 한세실업(주) 부회장  
김지연 (주)컨셉 대표이사  
김현전 한세엠케이(주), (주)한세드림 대표이사  
도형태 히든베이호텔 사장  
류지훈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박병엽 SB Investment 사장  
박성전 팬택씨앤아이 대표이사 회장  
박선주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사장  
박용운 아성다이소 부사장  
송병준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송영숙 컴투스·컴투스홀딩스·위지웍스튜디오 의장  
우찬규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유상욱 학교재 대표  
이교상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이규식 서울가든호텔 사장  
이명희 경신금융(주) 대표  
이주성 일우재단 이사장  
이주한 세아제강 사장  
이주한 (주)삼익유니버스 대표이사  
이택경 MashupAngels 대표  
임종훈 한미헬스케어(주) 대표이사 사장  
장선하 (주)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장인우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정재봉 사우스케이프 회장  
조영준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최정훈 (주)이도 대표이사  
최철원 MIGHT&MAIN(주) 사장  
한혜주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허유희 GS건설 사장  
효 경 회원

## 은관회원

강원기 오리온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권지혜 아이에스지주 전무

김대환 (주)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주) 사장  
김영명 (주)예울 이사장  
김영희 회원  
김재훈 영풍제약 대표이사  
김종한 (주)종합전기 대표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  
류방희 (주)풍산주택 회장  
박경진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박선주 영은미술관 관장  
박영정 V&S자산운용 이사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서재량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성래은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성필호 광성기업(주) 대표  
송 철 성문출판사 대표  
신병찬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양홍석 대신증권(주) 부회장  
유승희 코리아나 화장품관 관장  
유창종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윤현경 동화약품 상무  
이상재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이정용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정은미 블룸앤코 대표  
최용선 (주)인팩 대표이사  
함영준 (주)오뚜기 회장  
홍정도 중앙그룹 대표이사 사장  
홍진기 마리오 아울렛 상무

## 청자회원

강승모 KP그룹 부회장  
고기영 (주)금비 부회장  
구동희 (주)LS 전무  
구본권 LS-Nikko동체현(주) 전무  
구본상 LIG 회장  
구본욱 LK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사장  
구분혁 에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구원경 (주)에스코홀딩스 과장

구원희	한성플랜지 이사	신연균	아름지기 이사장	조재현	회원
구은성	LS 네트워크 이사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대표	조희경	(주)가온소사이어티 대표
국현영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신창재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주신희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권재현	반도건설 부사장	신춘수	오디컴퍼니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재욱	하나유비에스 대표
권택환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양인집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차가원	(주)피아크건설 대표이사
김건호	(주)휴비스 미래전략주관 사장	양태희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차원희	차병원 그룹 상무
김경영	회원	어호선	VTI 파트너스 대표	천석규	천일식품(주) 대표
김경희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오승민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최선목	(주)조광건설 회장
김낙승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오치훈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COO)
김녕자	(주)예울 명예이사장	유동현	(주)인성 부사장	최세훈	(주)카카오/카카오페이 보험NewCo TF장
김동관	한화 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유영지	유급와당박물관 기획실장	최원준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현영알코비스 파트너/전무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유진현	(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대표	최원영	L Catterton 상무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윤 관	BRV Capital Management	최인선	회원
김미원	회원	윤보현	호림박물관 이사	최재원	SK(주) 부회장
김민수	(주)삼익악기 스페코 부회장	윤승현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최창화·정혜숙	회원
김상윤	유리자산운용 부회장	윤일영	영안주식회사 대표이사	최혜옥	회원·자원봉사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윤정신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최훈학	(주)한국가구 대표이사
김성완	스무디킹 Global CEO	이갑재	삼일회계법인 전무	한국도로공사	
김세연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이규호	(주)코오롱/코오롱글로벌 CSO/자동차부분장	한석현	SM 엔터테인먼트 DJ/프로듀서
김영무	김&장 법률사무소	이기용	열화당 대표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
김영수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	이만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허정석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김영혜	제일화재 이사장	이미숙	삼표산업	허진수	SPC 파크리크라상 사장
김유석	(주)행남 대표이사	이선진	목금토깬러리 관장	허치홍	GS리테일 상무
김윤수	지리산 문학관 관장	이수경	삼보모터스 그룹 부사장	현명관	회원
김은혜	지알앤주식회사 상무	이승용	(주)에이티네파트너스 사장	현지호	(주)화승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김인순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관장	이영순	한국미술협회 회원	호종일	호성홈업 회장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영자	회원	호창성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김정주	(주)NXC 이사	이용진	알스케어 대표	홍법석	백미당 사업본부장
김중학	서양화가	이용진	(주)경농 경영총괄 사장	홍석표	고려재단 사장/전략기획본부장
김지태	화성피앤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우성	SGC에너지(주) 부사장	홍원복, 김근호	회원
김태현	성신양회 회장	이우일	주식회사 유니드 전무	홍정국	BGF 사장
김태훈	두원중공업 부사장	이우현	OCI 사장	홍정인	메가박스중앙(주) 대표이사
김택진	(주)엔씨소프트 대표	이운경	남양유업 전문위원	홍정혁	BGF 부사장
김현강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상무	이윤기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홍진석	남양유업(주) 상무
노 석	석플란트 치과병원 병원장	이인수	수원대학교 이사장	황인규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노재연	오로라월드 대표이사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황정환	(주)케이제프 전무
담서원	오리는 수석부장	이주엽	대룡종합건설 상무이사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류중희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이준우	홍아해운 부사장	Mark Tetto TCK Investment management 공동대표이사	
문수희	회원	이지형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윤희	아주호텔엔리조트 대표이사	이철우	롯데쇼핑 총괄사장		
민경남	회원	이학준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민병철	어피너티에쿼티 파트너스 대표이사	이해진	NAVER GIO		
민준기	덴톤스 리(주)인병철교육그룹 파트너변호사	이 혁	회원		
박법준	(주)에이치케이디 코리아 부사장	임지선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박선경	용인대학교 총장	임재현	보해양조(주) 상무		
박재상	회원	장동진	(주)과워맥스 사장		
박재연	성곡미술관 이사	장성진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상무		
박정빈	(주)신원 부회장	장승준	매일경제 대표이사 부회장		
박정원	회원	양현재단			
박주원	시몬느 에프씨 대표	전영채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박준영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전윤수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박해준	회원	정영수	은산그룹(ES Creators, ES Investor) 대표이사		
박혜성	(주)농심기획 상무	정영해	회원		
방정오	TV CHOSUN 전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배윤식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정재호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백진우	(주)동성케미칼 사장	정지이	현대무비스 전무		
봉 옥	변호사봉옥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해인	회원		
서동임	회원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장		
설윤석	대한광통신 사장	조연주	한솔케미칼 부회장		
손원락	(주)경동인베스트 부회장	조영미	경동소재 대표이사		

\*2022. 2. 28. 기준



안중식, <배를 타고 복사꽃 마을을  
찾아서(桃源行舟圖)>,  
국립중앙박물관